

〈1학기 수업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참가 후기



얼마 전 수업 분석 의뢰가 들어왔다. 서면요청이었지만 ‘수업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익힌 전략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수업분석을 시작하였다. 촬영내용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고민해가며 아직 서툰 분석이지만 당당하게 수업분석 전문가로서 한 발을 내딛어 본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수업분석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몰랐던 나는 기계적인 촬영과 외부전문가에게 떠맡기기 식의 분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서울대학교 CTL에서 개최하는 〈수업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이란 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수업분석에 대한 관심과 수업분석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부푼 기대감을 안고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첫날, 수업분석에 앞서 학습과 수업전략에 대한 개념을 다지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내담자, 상담자로서의 실습과정을 신청한 나는 강의 내용 외에도 강사의 모습, 내용구성, 수업전략, 상호작용 등 분석적인 시선으로 강의에 몰입하게 되었고 수업분석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뿌듯함과 자긍심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내담자 실습을 위하여 카메라 앞에서는 순간, 자긍심으로 뭉쳐있던 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작아져 있었다. 동료 및 전문가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 이 시간 나의 모습이 분석 대상이 된다는 것들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새로이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보다 나의 강의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만족으로 작용했다. 강의로 인한 긴장감도 잠시, 상담자로서 나에게 상담을 의뢰한 내담자와의 상담을 위해 다음 강의의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었고 일과 후에는 다음날 이루어질 상담을 위한 분석 내용들을 작성해 보기도 하였다. 분석내용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내담자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의뢰한 내용을 서로의 대화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었다. 상담시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학적 지식과

이 경 희
공주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임연구원

경험이 필수라는 것, 내담자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 나가는 것 등이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내담자, 상담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전문가들이 정보와 고충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꼈다.

또 공주대학교 CTL 설립과 함께 시작된 CTL과의 인연으로 부쩍 성장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CTL 전문가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CTL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더욱 좋은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기대한다.

우수강의시리즈와 교수법 가이드 발간

다양한 우수강의 사례를 발굴하여 좋은 강의의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강의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우수강의시리즈'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자의 교수(teaching)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업 운영기술을 담은 '교수법 가이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팀(880-5387, tweety05@snu.ac.kr)